

“단순함 위에 쌓아 올리는 정교함으로 성장세 고도화”

2026 카드사 생존전략

현대카드

작년 3분기 업계 유일 순익 증가
카드·커머셜사업 ‘빌드업 단계’서
올해 외부 변수에 현명 대응하고
프리미엄·준프리미엄 시장 속도

현대카드의 올해 사업 전략은 ‘정교함’이란 단어로 집약된다. 기존 현대카드·현대커머셜의 강점을 단순화하고 여기에 정교함을 더해 앞으로 성장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 성장세 지속, 외부 변수 대응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이 성장세, 순익 등 모든 면에서 큰 성과를 만든 해”라고 평가하며 “2026년에는 성장세의 지속과 외부 돌발 변수에 대한 현명한 대응이 과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성과를 거둔 만큼,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 기존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관리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3분기 업계에서 유일하게 순이익이 증가했다. 3분기 현대카드 순이익은 895억원, 누적 순이익은 25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3%, 6.2% 증가했다. 신용카드 상품 라인업 강화에 따른 회원 유입 확대의 영향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현대카드 부티크, 알파벳카드 등 상품 라인업 강화를 통해 우량 회원 중심의 회원 수가 증가했다”며 “신용판매 취급액도 견조한 성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대카드 회원 수는 지난 2022년 약 1104만명에서 2025년 3분기 1261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 단순화·정교함으로 사업 고도화

기존 성장세를 유지·강화

하기 위해서는 ‘단순함’과 ‘정교함’을 키워드로 한 전략을 제시했다.

정 부회장은 “2025년까지가 현대카드·현대커머셜 사업의 그릇, 모양, 크기를 새롭게 설계하고 바꾸는 빌드업 단계였다면, 2026년부터는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고도화 단계로, 단순함 위에 쌓아 올리는 정교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의 사업 정의와 강점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고도화를 위한 추진력과 정교한 전략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상품을 정리하고 이를 발전시킨 ‘아키텍트 오브 체인지’, 사업의 정의를 다시 내리고 고도화시킨 현대커머셜의 산업금융, 현대카드·현대커머셜만의 인공 지능(AI)을 정의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테크 영역이 대표적인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 프리미엄 시장·테크 영역 확장

현대카드는 올해 기존 전략을 유지하고 특히, 프리미엄업과 준프리미엄 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대카드는 이미 지난해 ‘부티크(Boutique)’ 상품 3종을 출시하고 준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 외에도 연회비가 300만원에 달하는 ‘더 블랙’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라인업을 강화하며 프리미엄 고객군을 확보해 왔다.

AI를 중심으로 테크 사업 역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AI 투자의 중요성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정 부회장은 “성공의 엔진은 AI다”라며 “1~2등 카드사가 되는 것보다 AI에 압도적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지난 28일 해외점포 장들과 신년 화상회의를 가졌다. /NH농협은행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글로벌 수익성 강화 등 2026년 3대 전략 공유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지난 28일 해외점포장들과 ‘2026년 신년 화상회의’를 열고, 글로벌 수익성 강화와 AX 기반 경영관리, 원리원칙에 입각한 업무수행 등 3대 전략을 공유했다고 29일 밝혔다.

NH농협은행의 글로벌사업은 2026년을 ‘손익중심 경영 정착의 원년’으로 삼았다. 기존의 채널확장·자산성장 위주의 외형 확대에서 벗어나 위험조정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을 중시하는 포트폴리오 관리로 전환한다. 각 해외점포별 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구축한다.

AX 기반 해외점포 손익·리스크·고객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경영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밀도를 끌어 올리고 점포별 성과와 과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본점은 인력과 자원을 적재적소에 지원한다.

/김주형 기자 gh471@

트럼프 “약달러 바람직”… 환율 1420원대 진정세

달러값 4년 만에 최저수준 하락
‘관세 25%’ 협상국면, 영향 제한

작년 10월부터 빠르게 상승(원화가치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고 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값이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용인하겠다고 언급해왔다. 불안 요소로 남아있던 트럼프의 ‘25% 관세’ 발언도 협상국면으로 진입하면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됐다.

29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26.3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 증가 대비 3.8원 상승해 전일의 하락폭을 일부 만회했지만, 이틀 연속으로 1420원대에 거래되며 안정된 흐름을 지속했다. 환율이 1420원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 10월이 마지막이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작년 9월 말 1400원대에 돌입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했다. 수출기업의 달러 보유, 해외투자 증가 등을 이유로 국내 달러 수요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시

와 공급 간 불균형이 지속된 영향이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환율 상승은 지속됐으며, 올 들어 일평균 환율이 1460원에 육박해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했다.

지난 20일 1478.1원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로 급락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의 달러 약세가 바람직하겠다고 밝히면서, 달러의 약세 전망이 뚜렷해져서다.

뉴욕선물시장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달러인덱스(DXY)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장중 95.55(100보다 높으면 달러 강세)까지 내렸다. 이는 지난 2022년 2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저치다. 미국 내 불확실성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영향이다.

달러 가치가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최근의 달러 약세가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아

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달러는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항상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려 한다”라고 답변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적극 용인할 것이며, 달러보다 가치가 빠르게 하락한 엔화 절상을 위해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가 취임 이전부터 수출 부양을 위한 달러 약세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가파른 달러 약세가 환율을 끌어내린 가운데,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던 트럼프의 ‘25% 관세’ 발언에 대한 우려도 잦아들면서 환율 하락에 이바지했다.

트럼프는 지난 27일 관세 압박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어 28일에는 “25% 관세를 언급했던니, 그들이 하겠다고 말하더라”라며 이번 ‘관세 카드’가 한국 정부에 미국 내 투자 등 관련 입법을 압박하기 위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실속카드 수요 증가’… 신용카드 연회비 3년래 최저

작년 신규출시 신용카드 74종
연회비 평균 6만4836원 46% ↓

지난해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가 최근 3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여파로 실속형 생활비 카드를 찾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프리미엄 카드 비중을 늘리는 추세지만, 소비자들의 생활비 카드 선호 현상이 뚜렷한 만큼 당분간 ‘생활 밀착형 카드 출시’ 투트랙 전략을 유지할 전

망이다.

29일 국내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출시된 신용카드 74종의 연회비 평균은 6만483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46.2% 낮아졌다.

최근 3년 중 최저치다. 지난 2023년 6만9583원이었던 신규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는 2024년 12만513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으나, 지난해 6만4836원으로 다시 급감하며 하락세로 전환했다.

작년 하반기 3만원 미만의 연회비 카

드가 다수 출시된 데 따른 영향이다. 실제로 지난해 출시됐던 연회비 1만~3만원 구간 신규카드는 상반기 10종, 하반기 29종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프리미엄 카드로 분류되는 연회비 5만원 이상의 카드는 상반기 16종, 하반기 8종에 그쳤다.

이 같은 라인업 재편은 실속형 카드를 찾는 실제 시장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 고물가 기조속 연회비 부담이 적은 카드로 소비자 선호가 이동했다.

대표적으로 5만원 수준의 연회비를

선보이는 신한카드의 ‘디스카운트 플랜 플러스 카드’가 지난해 하반기 신용카드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다. 디스카운트 플랜 플러스 카드는 장보기 보너스, 온오프라인 쇼핑, 공과금, 음식점,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생활 가맹점에서 월 최대 10만원까지 할인되는 카드다.

2위에는 연회비 3만원 수준인 현대카드 ‘제로 업’ 카드가, 3위에는 연회비 2만원의 삼성카드 ‘아이디 셀렉트 올(iD SELECT ALL) 카드’가 순위에 올랐다. 낮은 연회비를 중심으로 한 신용카드가 인기 순위 상위권에 다수 포진된 모습이다.

/안재선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간상승률 0.3% 넘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름폭도 계속 커지는 모양새다. 주간매매가격 상승률은 0.3%를 넘어섰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넷째주(26일 기준) 서울의 전국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31%로 지난주(0.2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전국 기준 매매가격도 0.10%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 측은 “선호도 높은 역세권·대단지·학군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이어지며 상승 거래가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강남 11개구는 0.32% 올랐다. 자치구별로 관악구(0.55%)는 봉천·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44%)는 사당·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41%)는 신길·영등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은 0.3% 오르며 강남 못지 않은 상승세를 보였다. 전주(0.24%)보다 오름폭도 커졌다. 성북구(0.42%)는 길음·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41%)는 월계·상계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41%)는 상암·도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